

지난주 신청새가족[2024-65]



천예준 성도

- 새가족 등록 절차**
- 1 새가족실(B1)에서 신청서 작성
  - 2 일대일 양육
  - 3 속회(소그룹) 배정
  - 4 양육수료후 등록교인이 됩니다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010.3880.7209  
변희주 권사

예 배 안내

|          |     |           |     |
|----------|-----|-----------|-----|
| 주일예배     | 주일  | 오전 9시 11시 | 본당  |
| 유아유치부    | 주일  | 오전 11시    | 교육관 |
| 초등부      | 주일  | 오전 11시    | 교육관 |
| 청소년      | 주일  | 오전 9시     | 교육관 |
| 청년부      | 주일  | 오후 1시     | 교육관 |
| 매일아침예배   | 월-금 | 오전 5시30분  | 본당  |
| 수요일예배    |     | 오전 10시30분 | 본당  |
| 금요일말씀기도회 |     | 오후 8시     | 본당  |
| 속회예배     | 목-토 |           |     |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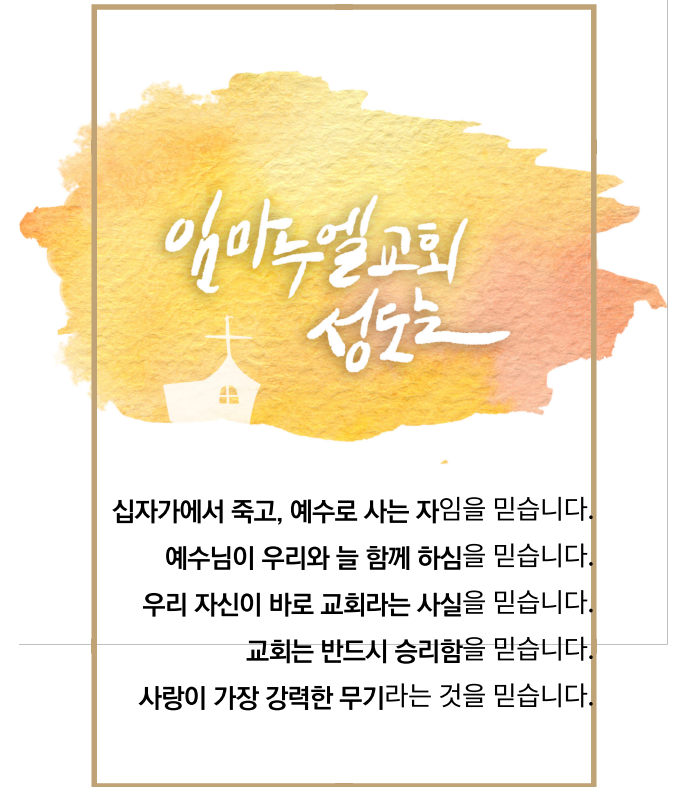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국내** 기동교회 안민혁목사  
영파교회 교병선목사  
익산벨벳교회 마준철목사  
극동방송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행복한선교회  
건국대학교병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시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06378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23길 7  
T 02.3411.1918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습니다.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동식사  
성도간에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봉사 1여선교회

**3** 2024 정기당회 및 구역회  
12.8(주일) 오후 1시 본당  
당회란 무엇인가요 감리교회에서는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하며, 매년 12월에 정기당회를 개최하여 의사를 결정합니다.  
당회에서 무엇을 하나요 입교인의 명부를 정리합니다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습니다. 임원을 선출합니다.  
참석대상 임마누엘교회 등록된 18세 이상 입교인입니다.

**4** 임원보고서 제출  
대상 모든 임원(집사, 권사, 장로, 속장)  
작성 및 제출방법 로비 제출함  
제출 기한 12. 1(주일)까지

**5** 여선교회 월례회  
1여선교회 오늘(24일) 2부 예배 후 성가대실  
2여선교회 오늘(24일) 2부 예배 후 본당  
3여선교회 오늘(24일) 2부 예배 후 본당  
4여선교회 오늘(24일) 2부 예배 후 3층 교육관

**6** 임마누엘 성탄축하파티  
12. 22(주일) 성탄축하파티에 공연으로 함께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개인, 가족, 속회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유한나 목사 010-9670-0537

#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         |                               |                   |
|---------|-------------------------------|-------------------|
| 경배와찬양   | 다함께                           |                   |
| *찬양     | 나를 통하여                        | 다함께               |
| *예배로의부름 | 김영광 목사                        |                   |
| *신앙고백   | 다함께                           |                   |
| 대표기도    | 1부 김성진 권사<br>2부 주진범 장로        |                   |
| 성경      | 사도행전 24:1-27(새번역)             | 사회자               |
| 특송      | 주는여호와<br>"다음 기회에"라고<br>말하지 마라 | 임마누엘찬양대<br>김영광 목사 |
| *봉헌과결단  | 주님 말씀하시면                      | 다함께               |
| *축도     | 김영광 목사                        |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 주일 대표 기도

12/1 1부 김은수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12/8 1부 김해숙 권사  
2부 전병희 장로

##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 요한계시록

김영광 목사  
유한나 목사  
김경현 목사

##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 가 정 예 배

##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온 세대 주일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 예수로 살리  
말씀\_사도행전 24장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했고, 총독 관할 아래에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유대인들의 살기는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5일 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변호사 더들로를 선임하여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사 더도로는 벨릭스를 한껏 추켜 세웁니다. "벨릭스 총독님! 저희는 총독님 덕분에 큰 평안을 누리고, 덕분에 발전했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3절) 아무리 입에 발린 아침이라고 하지만, 이 말에는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총독의 은혜로 평안을 얻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믿음도 내다 버리는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은 죽음 앞에 늘 당당히 "오직 예수"라 외치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후 이들은 바울이 전염병처럼 예수를 곳곳에 퍼뜨려 질서를 어지럽혔다 고발합니다. 이어 총독은 바울에게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바울은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합니다. 결국 벨릭스총독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으니, 천부장 루시아가 돌아올 때까지 재판을 미루겠다 말합니다.

# 가정예배

사실 벨릭스는 바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재판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남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예수님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벨릭스는 아내와 함께 있는 자리에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게될 심판에 대하여 강론했습니다. 그 순간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이 그 마음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 두려움 앞에서 도망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리라' 말하고 바울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돌려보낸 후에도 벨릭스는 계속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교제는 2년동안 이어졌지만 끝내 벨릭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벨릭스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받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복음을 만났지만 세속적 가치를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벨릭스처럼 세상의 가치를 손에서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마음을 두드릴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두려웠던 적이 있나요?
- 2) 두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렸나요 아니면 무시했나요?

##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헌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집 / 감사헌금-김바울집  
 주일헌금-김바울주 / 선교헌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헌금-김바울건